

4 종합

무용대 백스테이지 외부 천막 설치 내부 이동 논의 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 지난 7월 무용대 백스테이지 부재 보도 이후(무용대 외부통로, 백스테이지로 이용?/대학주보 1725호/2024.07.08.), 무용학부 행정실은 창작발표회 및 졸업작품 발표회를 앞두고 외부 통로 백스테이지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했다.

그동안 무용학부엔 실내 백스테이지가 없어 오비스홀과 무용학부관 사이 외부 통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7월 취재 당시 학생들은 “토슈즈를 신거나 맨발로 공연한 학생이 눈과 비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외부 통로에서의 의상 노출도 부담된다”며 “얇은 옷을 입는 출연자들은 감기에 걸리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번 학기말 창작발표회와 졸업작품 발표회를 앞두고 무용학부 행정실은 백스테이지로 사용 중인 외부 통로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했다.

무용학부 행정실 김은정 실장은 “추위를 고려해 학생들이 야외에서 전보다 편하게 대기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작발표회 때 천막이 설치된 백스테이지를 사용한 지채리(발레과 2023) 씨는 “천막이 생겨 다른 학과 학생이 지나다닐 때 무용학부 학생들과 접촉이 생기지 않아 좋았다”며 “무엇보다 추운 날씨 때문에 대기하면서 몸이 굳는 경우가 있는데 천막과 천막 안에 설치한 난로 덕분에 대기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쪽 백스테이지에는 천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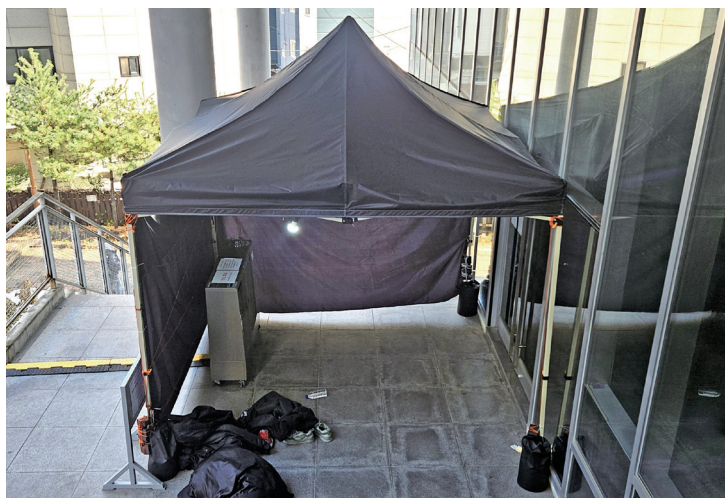
이에 “반대편 백스테이지 공간에는 천막이 아니라 난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안 나온다”며 “추위를 고려해 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백스테이지로 사용하도록 동선으로 변경했다. 천막 설치가 불가능한 쪽은 단으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하기 위해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민(발레과 2023) 씨는 등장과 퇴장을 천막이 없는 쪽으로 했기에 대기하는 시간에 천막을 사용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예전처럼 야외에서 대기해야 해서 많이 추웠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막이 없는 쪽의 백스테이지는 공간이 협소해서 행정실에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창작발표회가 있던 지난달 29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다.

지난 7월 총무관리처는 무용대 백스테이지가 부실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총무관리처 한덕영 부처장은 “당시 논의 때 무용학부가 건물 외부에 가림막이나 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백스테이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LED조명과 스피커를 새로 구입하는 등 시설 면에서 노력했지만 백스테이지 문제는 쉽지 않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공연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관리처와의 논의에서 말한 것처럼 무용학부관 내에 로비를 활용해서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용대 백스테이지에 캐노피 천막이 설치됐다.

(사진=이환희 기자)



지난 6일 '총장과의 대화'가 네오관에서 열렸다.

(사진=김규연 기자)

총장과의 대화 “학교와 학생, 더 높은 기준 가져야”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추천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 ‘총장과의 대화’가 지난 6일 네오관에서 열렸다.

개회사에서 김 총장은 “높은 기준을 갖고 학교의 부족한 점을 계속 찾을 것”이라며 “학교, 학생 모두 눈높이를 높여 모든 것이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장과의 일문일답’에서 사전질문 및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사전질문은 대학 생활, 학교 운영 분야로 이뤄졌다.

‘경희대학교만의 고유한 학풍은 무엇이고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것은?’이라는 질문에 김 총장은 “학풍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학생은 세계화된 교육을 받고 국제화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꼽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각각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총장은 “이미 우리는 국내 최고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시각을 가미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4년이라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더 의미 있을까”라는 질문엔 “이 4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높여라”라고 답했다. 또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라”라고 덧붙였다.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적으로 우리학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총장은 “캠퍼스 간, 전공 간의 지식 공유로 경희대만의 지식을 갖추고, 이를 사업화해 학교 재정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전공 제도에 관해 지은림 서울 학부총장은 ‘경희 교육혁신 모델’을 언급했다. “지금의 사회는 여러 분야가 초연결된 시대”라며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문계 학생이 이공계 역할을, 이공계 학생이 인문학적 역할을 갖추도록 양 캠퍼스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장 질의응답에선 세 학생이 질의 기회를 얻었다. 현장에 참석한 장우성(철학 2019) 씨는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가 부족하다”며 “특히 부족한 인문계열 장학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장학제도와 연구 활성화 지원 제도를 검토 중이며 인문 사회계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씨는 “우리학교 철학과 출신 철학과 전임교수가 없다는 점도 동기부여를 막고 있다”며 개

선 여부를 질의했다. 김 총장은 “교수를 단순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로만 모시기는 어렵다”며 “타학교 대비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학생 지원 문제에 김 총장은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진석(한 의예 2024) 씨는 “서울캠에 있는 54명의 장애학생이 언덕을 힘들게 오르고 있다”며 “이동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운송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어렵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어려운 학생을 위한 배려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진 미래혁신단장은 “효율적 운영 문제로 특별 운송 차량은 운영을 주저했으나 제대로 검토하겠다”며 “장애학생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조규영(미디어학 2021) 총학생회장은 “최근 사회가 혼란스러워 대학이 연구하는 본분 외에도 사회적 기능 수행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대학의 총책임자로서 사회적 기능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총장에게 질문했다. 김 총장은 “대학답게 날카로운 지성과 학문을 겸비해 행동해야 한다”며 “대학 내 지성이 외부에서도 영향력 있도록 우리가 높은 지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